

데스크 시국

광주판 페이스북 성공신화를 꿈꾸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편집부국장

지난 17일 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혁신' 연수차 미국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했다. 미국 금요일 오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과 주간 토론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들은 터라 내심 기대했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토론은 끝난 이후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직원들이 '해피어워'라 부르는 파티타임에 함께 참여하게 돼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다.

자율 속에 핀 대박신화

와인과 맥주가 무한대로 제공되는 해피어워는 페이스북 직원들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작은 마을의 공원을 연상시키는 회사 광장에는 직원들이 필드하기를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종일 정성 들여 만들어진 돼지 바베큐가 먹을 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가든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음

식과 와인을 나누며 담소하고 있었다. 회사라는 분위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유분방함과 삶이 넘치는 에너지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색다른 소회를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24시간 열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되는 모든 것이 공짜라는 풍요로움이 부럽기까지 했다. 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자기가 맡은 미션만 완수하면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완벽한 자율시스템은 왜 페이스북이 그 짧은 시간에 초대박신화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필자가 만난 한국 출신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치열한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이 페이스북 신화의 에너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 마을에는 완전히 열린 사무실들이 있다. 필자가 인터뷰한 한국인 직원들은 그곳을 '워게인룸'이라고 불렀다. 컴퓨터 몇 대만 덩그러니 놓인 그곳은 페이스북 직원들의 열정이 폭발하는 곳이라고 한다. 미션이 주어지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팀을 꾸려 전쟁을 하듯 그곳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미션이 완성되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머물며 격렬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전쟁처럼 치른다. 다른 직원들은 지나다니며 그 작업 광경을 고스란히 보게 된다. 자연스럽게 다른 미션팀에 영향을 미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접해왔던 저커버그왕국의 실제 모습은 자율과 도전 그리고 열정이라는 세 가지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저커버그의 확고한 철학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투자는 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유 의지가 기업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커버그는 누구인가. 하버드대학의 교내 SNS에 불과했던 페이스북을 9억 명의 가입자에, 110조 원의 자산가치를 가진 거대기업으로 만든 이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21조의 벼락부자가 된 그는 무형의 콘텐츠를 천문학적 부로 일컫는 현대판 마이더스인 것이다.

페이스북 벤치마킹을

저커버그 신화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문화수도 광주의 현실이 오버랩됐다. 문화라는 무형의 콘텐츠를 부로 이끌어야 하는 점에서 페이스북의 성공신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그렇다면 작금 광주의 토양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신화를 쓸 수 있는 걸까? 하나 문화수도 광주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 드러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창조를 외치는 광주시의 문화정책은 지원한 만큼 간섭하겠다는 원칙을 굳건히 고수해 방만한 이벤트성 사업과 관치 위주의 콘텐츠에 매몰되어 있다. 내년 완공을 앞둔 문화의 전당은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지 그 답문조차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인기업 중심의 콘텐츠 업체들은 관급 지원에 목매어 있고, 변변한 문화기업 하나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런 토양에서 아시아 문화를 이끌어갈 거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을지, 또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 문화산업이 부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감히 페이스북 벤치마킹을 화두로 던져보고자 한다. 광주판 저커버그 탄생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투자는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문화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길 바란다. 열정과 도전정신만 있다면 누구나 문화기업을 열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또한 마련했으면 한다. 누구나 광주에 오면 문화산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판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공장식 획일적 교육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치 위주의 문화산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은 직접지원에서 자율성의 바탕 위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요체다. 문화산업은 아시아문화발전소인 광주의 미래식량이다. 그 미래식량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문화수도 광주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다.

/kih8@kwangju.co.kr

社說

국과수 DNA 분석 늦어 절도피해 키우다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를 확보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설 때까지 해당 절도범이 19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DNA 분석이 18일이나 걸리면서 이에 따른 경찰의 벌인 검거가 지연돼 피해를 키운 것이다.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25)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식당에 침입, 현금 44만 원 탈취하는 등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광주·목포·영암 등지의 상가와 식당에서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범행 현장에서 김씨가 남겨놓은 컵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18일이나 걸렸다. 이 기간 김씨는 광주 동·북구 등지에서 5건의 추가 절도행각을 벌였다.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확보한

뒤 신원을 확인, 지난 18일 광산구 한 PC방에서 김씨를 붙잡을 때까지 그가 벌인 절도행각만 14건에 이른다. DNA 분석 결과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 피해만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경찰도 국과수에 DNA 분석을 신속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월 발생했던 나주 금은방 절도사건의 경우 경찰의 '긴급' 분석 요청에 따라 국과수가 하루 만에 DNA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는가. 물론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에 치여 절도범의 DNA 분석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국과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분석 지연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건 어떤 식이든 설득력이 없다.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강화하는 게 옳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과 국과수가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담배 학생' 훈계, 꼭 법적 잣대로 봐야 하나

광주에서 담배를 피우는 탈선 청소년을 어른들이 훈계하다 급기야 손찌검으로 번져 있따라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최근 30대 후반 시민이 라이터를 빌려 달라는 청소년을 나무라던 중 목살잡이로 이어져 폭행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초에도 20대 후반 청년이 담배를 피우던 10대 3명을 제지하며 뺨을 때렸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훈계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어른에게 대들다 폭행으로 번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같으면 어른이 보이기만 해도 못된 행동을 멈추거나 자리를 피하는 게 상례였지만 지금은 누우치기는 커녕 거친 말로 대꾸하는 게 다반사다. 물론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심한 말을 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탈선 청소년의 대부분이 반항적이어서 훈계 중에 생겨날 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예상하고도 '어른'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는 본받을 만하다. 이들의 일탈을 보고서도 봉변

당할까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각박한 세대에서 용기를 내 훈계하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팀 소속 이현호 선수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이들이 비아냥거리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가 경찰에 폭행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모들은 한결같이 "비뚤어질지 모르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줬다"며 되레 감사를 표시했고, 학생들도 반성했다고 한다. 훈계하는 어른이 한두 때 때렸다가 고소로까지 번지는 행태는 안타깝지만 폭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경찰에 알리는 게 현명하다. 작금의 세대가 그렇지 않은가. 해당 청소년들의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심각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면, 꼭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훈계하는 어른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줄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은펜칼럼

미래 인재의 요건



김창권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교육은 사회 구조의 한 영역으로 존재하며, 사회 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계 조건이다. 이런 관계성에서 보면 교육이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안정적 직업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것도 일견 이해된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과 미래사회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영학의 guru(구루, 권위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Tom Peters)는 '미래에는 모든 것의 본질 자체가 뒤엎긴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대변화가 기존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돈은 파괴를 부르지만, 그 파괴는 새로운 생명의 동인(動因)이 될 수도 있는 지적이다. 이미 산업간 구분이 불명확한 '블러(Blur)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슈머(Prosumer) 현상을 들 수 있다. 생산자인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인 컨슈머(Consumer)의 합성인 프로슈머는 제품의 구매자인 동시에 생산자다. 이들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 관계를 뒤바꿔놓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감각과 경험을 쌓은 T자형 인재, 전구형 인재들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깊이(?)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춘 T자형 인재는 한 방향만 비추는 레이저빔형과 대비되며,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다르지 않아, 질서에 대한 재해석과 창조 능력을 보

다 강조하게 된다. 모르는 것은 가르치면 되지만,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탐구력과 실행력은 오랜 배움과 경험 속에서 숙달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 구글 등 혼돈의 현대사회를 선도하는 기업의 원동력이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이라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탐구력과 실행력은 '창의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키워질 수 있다. 물론 학습 의지 부족이나 태만에서 오는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과감한 시도를 조장하고, 이로 인한 리스크를 허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유대인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질문을 많이 하라'고 가르칠 때, 우리나라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질문은 학습 과제에 대해 어떻게(how)가 아니고 왜(why)라고 접근함으로써 기존 루틴에 대한 재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정답에 대한 이해와 적용, 순응

을 강조하는 우리와 달리 관행에 대한 의문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교육은 창조적 과제를 요구하는 미래사회의 추세와도 부응한다. 얼마 전에는 국내 학생들이 미국 대학수능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한국 내 시험이 취소되는 사태도 있었다. 시험 지역의 시차를 악용한 문제 빼돌리기도 문제지만, 출제 경향을 미리 연습시키는 선행(先行) 학습의 논리, 나아가 체제 순응형 인재 키워기가 횡행하는 우리의 자화상이 공개된 듯하여 씁쓸하다. 수이불실(秀而不實)이란 말이 있다. 이삭이 올라와 꽃은 피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뜻이다. 좋은 성격으로 국내 명문대나 미국 대학에 진학할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無等鼓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뿌리가 짙다. 일본은 최근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 왜곡으로 전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수를 지냈던 이마니시 류는 단군신화를 '고려 초기 민족의식이 고양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 따르면, 단군은 기원 전 2333년에 즉위했다. 일본의 제1대 진무천황(神武天皇)이 즉위한 기원 전 660년부터 1670년 이상 더 빠른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를 인정하면 일본이 까마득한 아우가 되고, 메이지(明治) 천황은 조선 황제의 동생이 되는 만큼, 일본으로서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괜히 생겨난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이 전체 세계를 상대로 언제까지 소어(小我)적인 행태를 되풀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신화(神話) 왜곡



기고

쓰레기 없는 바다, 바다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성형  
여수해양경찰서장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라고 한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공통된 인식이다.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나.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치열한 해양자원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들이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육지의 자원을 이용한 가치창출의 시대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가치창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향

후 21세기를 해양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가꾸느냐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건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만큼 해양의 이용과 이로부터의 가치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해양이 우리의 공공 재산이다. 그렇다면 이 해양이라는 공공재산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크고 먼 존재로만 느껴지는 바다, 그저 바라보고 즐기는 바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다 안아주고 용납해 줄 것만 같은 바다, 아마도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해양에 대한 이미징이다. 어떠한 것도 다 수용해 주려는 생각으로 기업은 폐수를, 국민들은 생활 쓰레기를, 어선들은 오물을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 내가 버리는 것들은 그렇게 크고 넓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에, 우리는 바다가 또 그것을 너그럽이 받아 깨끗한 바닷물로 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바다는 여전히 그렇게 너그럽고 건장한가? 해마다 일어나는 적조를 비롯한 일련의 해양환경 재해, 병들어 가는 바다에서 잡아 올린 해로운 해산물,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해변의 더러운 오물들,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바다를 향해

던진 생각 없는 행위들의 결과들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15만9800t으로, 육상기인 쓰레기는 10만9400t, 해상기인 쓰레기는 5만4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하천과 강을 통해 유입되는 목재, 초목류, 폐합성수지, 페타이어 등과 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페어망, 로프, 페스티로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양쓰레기가 침적되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의 심미적 가치도 훼손시켜 결과에는 국민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바다로 와서 침전시켜 치우려면 육지의 20배인 통당 23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든다." 정부는 바다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에게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인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여 지난 1996년부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해양환경보전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항만 및 바다 청소작업을 연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바다의 날을 계기로 해양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맑고 깨끗한 바다로 돌려놓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환경교육과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다영토를 보살피는 일은 국가와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00-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55)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